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수시비율 2배 이상 커질 것”

지역인재전형 1071명→2197명
80% 이상 수시 선발 전망
비수도권 내신관리 중요해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정부가 2025학년도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 선발도 늘리기로 하면서,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수시모집 비율이 지금보다 2배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이전 기준으로 2025학년도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는 1071명으로, 비수도권 의대 전체 정원의 52.9% 차지했다. 지역인재전형 1071명중 79.4%인 850명은 수시전형에서, 20.6%인 221명은 정시전형에서 선발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총 3662명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도 늘어날 것인 게 종로학원의 관측이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인 경기·인천 지역 의대 전체 정원은 209명에서 570명으로, 비수도권 정원이 2023명에서 3662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늘리며 지역인재전형을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 규모는 총 219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은 이 중 80% 수준인 1758명가량을 수시에서 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럴 경우 지역인재전형 수시 규모는 예정됐던 850명보다 2배 이상 커진다. 비수도권 의대가 지역인재전형의 수시 비율을 높이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수능 고득점자가 적은 비수도권에서 정시로는 미선발 가능성이 생

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과거 의대는 내신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 수시에서 선발하지 않고 정시로 이월시켰지만, 이번에 의대 모집인원이 증가하며 의대 간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비수도권은 수시에서 최대한 뽑으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완화할 가능성 높다”고 내다봤다.

임 대표는 “이럴 경우 비수도권 학생들은 학교 내신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 350명 구성

교원 지위 향상·교육활동 보호 강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 25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원에서 350여 명의 위원과 업무담당자 연수를 진행한다.

각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해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을 심의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각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 학부모, 경찰공

무원, 변호사, 교육활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학교급별 소위원회를 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의결을 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법령의 이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시나리오 이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의 실제 등을 다룬다.

시교육청은 이번 연수와 더불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버스 대란’ 명동입구 정류소 밀집도 줄어

광역버스 노선 분산 등 대책 마련
퇴근시간 보행밀도 56% 감소

서울시는 지난 1월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서 교통 혼잡 해소 대책을 추진한 결과 광역버스 운행시간이 최대 13분 줄고, 퇴근시간대 정류소 밀집도는 50% 이상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명동 일대 혼잡도 개선을 위해 정류소 노선 분산, 퇴근시간대 모범운전자 배치, 줄서기 표지판 운영 유예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실시했다.

개선책 시행 이후인 2월 26~29일 명동 일대를 경유하는 29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오후 4~6시 차고지 출발 기준으로 전체 운행시간이 종전 2월 19~22일보다 평균 약 5분 줄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체 구간 초입 롯데영플라자 정류소를 시작으로 명동입구 B, 광고 등 신설 정류장으로 노선이 분산되면서 차량 흐름이 원활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류장 분산을 추진한 대

부분 노선의 평균 운행 시간이 감소했고, 성남 방향 노선은 최대 13분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명동입구 정류소 보행 밀도도 개선됐다. 퇴근 시간대 보행 밀도는 노선 분산 전 0.76인/㎡에서 대책 시행 후 0.33인/㎡로 약 56% 감소했다. 정류소 대기 인원도 35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줄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수도권 승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의 전향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리스타일링·세액공제로 활기 찾는 세계도시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이탈리아, 소도시 경제 활성화
미국 포틀랜드, 세액공제 혜택

세계 주요 도시들이 소도시 리스타일링, 사업자 대상 세액 공제 혜택 확대로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라는 고질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24일 서울연구원의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작은 마을의 인구 감소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 리스타일링으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인구 축소를 사회·문화·인프라가 점차 줄고 주민 삶의 질이 위협받는 문제를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풀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젝트는 소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고유문화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서울연구원은 “지역마다 고유한 전통과 라이프스타일이 명확한 이탈리아에서 소도시의 발전 여부는 국가 정책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주제”라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통해 작은 마을들이 관광지로 자리 잡으면 대중교통, 상업 시설, 문화 서비스, 의료시설이 개선되고 자연스럽게 소도시의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포틀랜드시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뒤 기업들이 재택근무 확대, 고

용 축소를 통해 사무 공간을 줄이면서 교통량과 유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자 시는 작년 9월 긴급 조례를 제정하고 세액 공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시는 ▲2023/24 또는 2024/25 회계연도에 대상지 내 신규 임대 또는 기존 임대 기간 연장으로 4년 이상 비즈니스를 유지한 사업자 ▲대상 지역 내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4년 동안 25만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은 “세액 공제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이후 나온 경기 부양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원책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경기도, 봄철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조성

181개 사업지에 녹색 생활공간 조성

경기도가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 등 15개 도시숲 조성 사업을 통해 봄철 미세먼지 대응 총력에 나선다. 도는 올해 공원 및 숲 등 181개 사업지에 471억 원을 투입해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181개 사업 내용은 ▲가로숲길 25개소 ▲쌈지공원 47개소 ▲학교숲 16개소 ▲도시숲길 정비 13개소 ▲도시숲 리모델링 16개소 등이다.

올해 도시숲 사업 중 가장 긴 구간의 가로숲길이 조성될 지역은 연천역로 구간이다.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일대에 약 5km 구간에 가로숲길이 조성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등을 포함하여 총 25개의 지역이 대상지로 결정되어 도시숲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녹색 쉼터를 제공하는 쌈지공원은 올해 47개소가 조성된다. 학교 내 부지를 활용하는 학교 숲은 파주시 적암초등학교, 여주시 흥천중학교, 김포시 양곡고등학교 등 16개소에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28 | 해질 / 18:49

3월 25일(월)
음력 : 2월 16일

수도권 날씨
10 ~ 13°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7/13, 동두천 8/14, 가평 6/13, 파주 7/14, 서울 10/13, 양평 8/13, 양주 10/13, 수원 10/13, 인천 9/12, 백령도 8/11, 평택 8/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러, 테러 하루만에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 /사진 뉴시스
▲美, 씩다벨은 껌에서 채취한 DNA로 44년전 장기미제 살인사건 해결

▲체감온도 62도 치솟았던 브라질, 폭우·홍수로 최소 11명 사망
▲구테흐스, 가자구호품 봉쇄 비난…네타냐후 “유엔이 반유대주의 선동”



▲튀니지, 유럽행 불법이민 1178명 구조…밀항 28건 단속 /사진 뉴시스
▲블링컨 “모스크바 테러 공격 극악무도한 범죄”